

로마서 5장 9-10절 (2)

- 읽을 말씀 롬 5:9-10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 5장 9-10절의 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견인의 교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 그렇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이나?

저는 로마서 5장 9-10절이 전반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변호를 통해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후반절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변호를 통해 심판 날 더욱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욱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는 주장으로 오해하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냐?"라는 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견인의 교리를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은 로마교회 성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칭의의 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11절은 로마교회 성도들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1절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우리' 라는 단어를 통해 자신을 포함시켰고, 그들은 모두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로서 명목상의 신자는 이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2-3절에 의하면 로마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지금 성화나 견인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한 후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 쓰지 않고, 의롭다 함 받은 사람들의 특권 혹은 유익에 대해 썼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1절에서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제 화평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한다고 합니다. 2절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즉 율법 아래서 벗어나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갔으며(참조. 롬 6:14), 궁극적인 구원을 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고 실제로 즐거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3-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난의 순기능은 환난에 바르게 반응할 때만 작동하는데, 이곳에서는 이런 반응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포함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뒤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런 자들의 소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 6-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9-10절입니다.

9절은 **"그러면"**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 말에 기초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가 아니라 앞에서 설명해드린 그런 사람들의 소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9a)"**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10a)"**이 1절 전반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전반절은 의롭다 함을 받은 자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를 설명하기 위해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9-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증거가 9절에 나오는 **"이제"** 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의롭다 함 받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자의 '현재' 에 근거해서 그런 자들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견인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해석이 옳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신하도록 몇 가지 확실한 증거들을 소개합니다.

1) 이 구절들의 위치가 견인의 교리를 설명할 곳이 아니다.

로마서 3-5장은 율법주의를 상대로 복음을 변호하면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6-8장은 무율법주의를 상대로 복음을 변호하면서 순종의 필요성과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은 5장에 위치해 있으므로 아직 견인의 교리를 설명할 때가 아닙니다. 그 교리는 6장에 가서 다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견인의 교리를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2) 그 사실을 12절의 "그러므로"가 뒷받침해준다.

로마서 5장은 크게 1-11절, 12-21절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12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존 스토틀는 「로마서 강해」에서 "'그러므로' ... 이것은 12-21절이 ... 사실상 지금까지 그가 말한 주제의 결론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12-21절의 내용을 통해 9-10절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검증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21절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은 견인의 교리가 아니라 칭의와 구원입니다.

3) 견인을 설명한 것이면 바울의 다른 글들과 모순이 된다.

로마서 5장 9-10절이 견인의 교리를 다룬 것이라면, 칼빈이 주장한대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됩니다. 그럴 경우 믿고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그 후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전체와 바울 자신의 글과도 모순됩니다.

에베소서 5장 5-6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 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신자라도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의롭다 하심을 받았더라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신자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짐 받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기를 말하니"라는 부분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기다리시"라는 표현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잘하고 기다리는 것, 즉 깨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자들도 준비하는 자만 장래 노하심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도 “형제들” 즉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성도들에게 무조건 심판 날 노하심에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8)”**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사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9-10절은 견인의 교리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4) 이 구절들 안에서 견인의 조건들을 찾아볼 수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벧전 1:5).”와 같이 견인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 둘째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견인은 최초의 믿음이 아니라 신앙생활과 더 관련이 있고, 당연히 믿음에 따르는 순종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견인은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조건적인 보호입니다. 그래서 견인을 다룬 구절들에는 반드시 이 중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9-10절에는 둘 중 어느 것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들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심판 날 변호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로마서 5장 9-10절은 견인의 교리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칼빈의 교리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들은 결과적으로 '이미의 칭의'와 '아직의 칭의'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칭의에 '이미의 칭의'와 '아직의 칭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이에 있는 성화의 과정에서 순종해야 함을 함축하고, 또 그런 자만 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구절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도리어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 나눔과 적용

의롭다 함을 받아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준비하는 자만이 장래 노하심에서 건짐받을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날마다 깨어 기름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변화되어야 할 점들을 나눠봅시다.